

# 2006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

정재민(육군사관학교)

1. 머리말
2. 설화
3. 민요
4. 무가
5. 판소리
6. 민속극
7. 마무리

##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도에 발표된 구비문학 연구논저를 살펴보고 그 대략적인 연구동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다. 즉, 시기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기로 하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살펴하기로 한다.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구비문학 연구논문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구비문학계의 연구성과를 주기적으로 종합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전망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1년은 학계의 흐름을 재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발표된 구비문학 연구논저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들 연구논저를 일일이 소개하고 평가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필자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는 저자의 의도조차 제대로 읽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물의 형태에 따라서, 하위갈래의 구분에 따라서, 또는 문제의식과 연구시각에 따라서 등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연구동향을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동향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효과적으로 1년간의 연구동향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길은 그에 대한 외형적인 평가와 내면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우선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제반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목록을 만들고, 학회별 주요한 관심사항을 추적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비문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채록 및 정리 결과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연구주체의 외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면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연구방법론과 문제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연구방법과 차별화된 문제의식은 필연적으로 선도적인 연구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형과 내면,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구비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총론에서부터 하위장르별 각론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연구성과를 변별해내고,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 2. 설화

설화는 구비문학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이는 전승되는 설화 유형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006년의 경우에도 작품론, 연행론, 장르론을 비롯하여 비교문학, 기호학, 민속학, 교육학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작품론 중에서 집약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는 강원도의 인물전설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강원도민속학회의 기획 아래 강원도의 향토인물을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조망한 17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sup>1)</sup> 예를 들어 홍천의 이괄, 양구의 박장사, 삼척의 허목, 영월의 김삿갓, 철원의 궁예, 춘천의 신승겸, 양양의 의상과 원효 등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고장과 인물을 연관지어 논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설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로 강원도 지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강원지역의 인물민속사라고 할 만하다. 논의의 대상이나 방식은 새롭다고 할 수 없으나 특정지역과 연관되는 인물설화 연구를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특정지역과 연관된 설화 연구로는 강은해, 박상란, 박종익, 이병찬, 최명환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물설화를 통해 대구·경북의 문화원류를 살핀 강은해의 논문이다. 즉, 대구·경북 지방에서 큰 정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지는 원효, 일연, 최제우를 전범으로 삼아 개인의 틀을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정신과 인간존재에 대한 존중과 외경을 터득하는 정신사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세 명은 생존시기가 서로 상이하지만 모두 신분상 변경인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귀족과 서민, 성과 속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루어낸 정신세계가 문화적 토대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다소 포괄적인 논의이기는 하지만, 지방학 또는 지방문학 연구의 모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고 본다.

한편 문헌설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이야기 문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는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강진옥은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 깨달음의 양상을 논하였으며, 윤혜신은 7~9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대상으로 자연신에서 불교적 천신으로의 변화 양상을 논하였다.<sup>2)</sup> 즉 천신의 인격화 양상을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가 샤머니즘에서 불교로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이동과 상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설화문학의 전변을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의 주요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논함으로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적 기복신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강옥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고승들의 출가 득도담과 성불담 속에 그려진 세속적 지향과 초세속적 지향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sup>3)</sup> 즉, 출가 자체가 세속을 부정하는 행위이지만 득도와 성불은 세속적 경험을 통하여 검증됨으로써 진정한 초세속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일연은 이들 이야기를 이용하여 출가자의 삶과 깨달음을 구현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삼국유사》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소재와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편을 묶어 함께 통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다. 김군태는 소설배경론을 펼

1) 강원도의 향토인물 연구논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특정지역과 연관된 설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은해, 「인물 설화에서 살펴 본 대구·경북의 문화원류」, 『한민족어문학』 48집, 2006; 박상란, 「지명전설에 나타난 궁예상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박종익, 「대전광역시 명당실태와 풍수설화 고찰」, 『어문연구』 52권, 2006; 이병찬, 「포천지역 설화의 연구」, 『반교어문연구』 20집, 2006; 이병찬, 「포천지역 설화의 특징」, 『인문학 연구』 1호, 2006; 이영수, 「궁예 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43집, 2006; 최명환, 「충북 북부지역 여성설화 연구」, 『충북학』 8집, 2006.

2)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집, 2006; 윤혜신,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 나타난 천신의 인격화 양상과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30집, 2006.

3) 이강옥, 『《삼국유사》』 출가 득도담 및 출가 성불담의 초세속 지향 양상,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쳤던 이덕무가 남긴 설화자료에 나타난 세계인식을 살펴보았다.<sup>4)</sup> 이덕무는 『耳目口鼻書』나 『西海旅言』 등의 자료에서 자신이 들었던 전설, 민담, 야담, 일화 등 소위 街談巷語를 기록해 두었다. 이들 자료와 그에 대한 논평을 토대로 하여 이덕무의 세계인식과 소품문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조희웅은 조선 초기의 설화를 대상으로 6개의 시기로 나누어 구비문학사를 개괄한 논문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여 문헌설화 자료를 테마별로 정리하고 있다. 즉, 조선 초기를 6개의 시기로 세분한 후, 각각의 시기와 연관된 설화자료를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는 특정시기, 특정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별 혹은 소개별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유형론과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자료를 시대별로 총체적으로 개괄한 것은 설화문학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각편이나 유형 차원에서 일부 심도있는 천착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는 비교문학적 접근이 특히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교문학적 방법 자체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해왔지만, 근래에 들어 비교대상이 확대되고 연구자의 국적도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외국자료에 대한 소개와 비교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비교대상이 확대된 것으로는 광진석의 시베리아 나나이족의 창조신화 연구, 김상현의 크로아티아 구비시가 연구, 김효정의 튀르크 설화 연구를 들 수 있다.<sup>5)</sup> 외국학자에 의한 성과로는 나리사와 마사르의 한·중 우순 설화 비교, 노르브남의 한·몽 별의 기원설화 비교, 마쯔바라 다카토시의 고구려신화 연구, 박명숙의 한·중 구복여행설화와 차복설화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이들 외국학자의 연구는 두 나라의 유사한 설화를 찾아내어 양자를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대응되는 각편이나 유형을 찾아내는 일조차 쉽지 않은 까닭에, 많은 경우 심도있는 분석과 의미해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과 몽골의 별 기원 설화를 분석한 노르브남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즉, 몽골의 칠성형 설화와 칠성풀이, 조천석의 모험 등을 비교하여 양국의 사회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것은 자료비교에 그치지 않고 의미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학자의 연구와 더불어 서대석, 조희웅, 황인덕, 박경희, 이상렬, 윤승준 등 국내학자들의 비교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7)</sup> 서대석은 한·중 소화 연구의 하나로서 무식담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소화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희웅은 <색시 찾은 신랑> 유형군에 속하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아내 얻기 유형에서 아내 찾기 유형으로의 변이과정을 논하였으며, 황인덕은 인도·중국·한국의 구복여행담을 대상으로 전파와 토착과정을 추적하였다.

비교문학적 연구방법 외에도 오세정은 기호학적 입장에서 한국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를 탐구하였고, 정재민은 민속학적 입장에서 면신례 풍속의 변화와 신래희학담의 관련양상을 다루었으며, 신원기는 교육학적 입장에서 설화의 가치를 살피기도 하였다.<sup>8)</sup> 또한 여성학적 입장에서는 이승수는 설화에 나타난 오누이의 형상을, 오세정은 구비설화의 성 담론을, 박상란은 구비설화에 나타난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캐릭터

4) 김군태, 이덕무 문집 소개 설화의 이념과 소품문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2006.

5) 광진석, 「시베리아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 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김상현, 크로아티아 계몽주의문학과 낭만주의문학의 구비시가 전통계승 양상,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김효정,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6집 2호, 2006.

6) 나리사와 마사르, 우순 이야기의 전형과 그 한국적 전개,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노르브남, 몽·한 설화 비교, 『어문학논총』 25집, 2006; 마쯔바라 다카토시, 고구려신화의 재검토, 『어문학논총』 25집, 2006; 박명숙, 한·중 차복설화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29집, 2006; 박명숙, 「한·중 구복여행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7) 서대석, 한·중 소화의 비교연구, 『어문학논총』 25집, 2006; 조희웅, 「색시 찾은 신랑」, 『어문학논총』 25집, 2006; 황인덕, 한·중·인 구복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집, 2006; 박경희, 경기 해안도서와 동아시아의 설화 전파, 『동아시아고대학』 14집, 2006; 박연숙, 중국 호랑이설화의 한일 수용양상 비교연구, 『일본어문학』 34집, 2006; 이상렬, 설화에 있어서 동물의 문화상징적 의미 비교고찰, 『어문학논총』 25집, 2006; 윤승준, 한중 우연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39호, 2006.

8) 오세정, 한국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 49집, 2006; 정재민, 면신례 풍속과 신래희학담의 관련양상, 『민속학연구』 18호, 2006; 신원기,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0집, 한국어교육학회, 2006.

를 고찰하였다.<sup>9)</sup>

설화는 이야기 현장에서 구연되는 문학으로서, 연행론적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up>10)</sup> 신동훈은 종로구의 이야기관을 중심으로 도심 공원 이야기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조망하였으며, 현승환은 세경 본풀이, 영등신화, 당신신화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화와 의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찰하였다. 황인덕은 맹인 이야기꾼 이몽득을 대상으로 그의 생애와 설화력, 표현상의 특징 등을 살핀 화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편, 심우장은 네트워크 이론으로 구비설화 이야기관의 구조와 특성을 논하였다. 이야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상호작용 혹은 관계에 주목하여, 이야기관의 흐름(동질성, 다양성), 병렬구조와 계층구조를 수렴한 네트워크 구조, 복합적응시스템에서 추구되는 5가지 특성 등을 규명하였다. 이 논의는 종래의 유형론이나 화자론을 벗어나 이야기관의 연결망이나 체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3. 민요

민요는 그 속성상 가사, 곡조, 기능을 축으로 하여 연구하거나, 지역적 전승양상을 살피는 경우도 있으며, 양자를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총체적 연구로는 강등학의 <땅다지는 소리>에 대한 고찰을 들 수 있다.<sup>11)</sup> 그는 <땅다지는 소리>의 지역적 분포와 주변지역 노래와의 연관성을 음악과 기능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땅다지는 소리>는 중부지역에서는 지경소리가 중심이 되고, 위로는 달구소리와 부딪치고 아래로는 상사소리와 여여라차소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런 대립과 충돌은 <땅다지는 소리>의 노동요 성격과 의식요적 성격이 중첩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가사, 곡조,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학적, 음악적, 전승적 특징을 두루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사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서영숙의 외간남자-여자 관계의 서사민요 연구가 주목된다.<sup>12)</sup> 서영숙은 외간남자-여자 관계를 다룬 7개 유형의 서사민요를 대상으로 담당층의 의식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이들 유형의 서사민요에는 평민여성들의 성에 대한 솔직한 욕구와 기대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 양면복합형과 좌절에 이르는 좌절우위형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특징은 결코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없는 사회적 현실과 금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가사를 중심으로 특정한 민요 유형군을 설정하고, 각 유형의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문학적 특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구비문학 갈래에 비해 민요는 지역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이런 까닭에 민요는 특정지역의 노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김진하, 김현선, 변성구, 양영자, 좌혜경은 제주민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sup>13)</sup> 이들의 연구대상은 모두 다르지만, 제주라는 지역의 성격상 여러 편의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9) 박상란,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캐릭터」, 『한국고전문학연구』 12집, 2006; 오세정, 「고전문학과 편견」, 『한국고전문학연구』 13집, 2006; 이승수, 「누이의 죽음, 잔영, 그리움」, 『한국고전문학연구』 13집, 2006.

10) 신동훈·김종균·김경섭, 도심 공원 이야기관의 과거와 현재,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집, 2006; 황인덕, 맹인 이야기꾼 이몽득 연구, 『인문학연구』 33권 1호, 2006; 심우장,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구비설화 이야기관의 구조와 특징, 서울대 박사논문, 2006.

11) 강등학, 「<땅다지는 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12) 서영숙, 「외간남자-여자 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 12집, 2006.

13) 김진하, 「제주 민요의 후렴 "이여도"의 다의성과 이어도 전설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6; 김현선, 제주도 동요 연구, 『한국민요학』 18집, 2006; 변성구, 「제주민요의 사실과 노래명 표기에 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집, 2006; 좌혜경, 「민속적 관점에서 살핀 제주민요 요종별 특성」, 『영주어문』 11집, 2006.

이중에서 김현선은 현지조사 자료와 그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가창자에 대한 조사와 민요목록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이윤정은 경기도 서북부지역 논농사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권오성은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 민요를 고찰하기도 하였다.<sup>14)</sup>

또한, 대중음악 및 현대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장유정은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의 한 갈래인 만요에 대한 연구에서, 만요 속에 투영된 신식 가정의 풍경, 새로운 인물군, 세태 풍자 등 근대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대중음악 향유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향유를 통해 정서 및 취향공동체가 형성됨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승희는 통신전자매체 상에서 창작·전승되고 있는 노래문학을 하이퍼텍스트 노래문학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민요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이 대중음악이나 현대적 매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민요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민요 분야에서는 민요에 관한 개별논문을 집성하는 한편 특정지역의 민요자료집이 발간되었다. 먼저 개별논문을 집성한 저서 출간은 2006년도 이전의 연구결과이지만 저자 나름의 계획 아래 집필된 결과의 누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민요학회가 주관하여 편찬한 『수산노동요 연구』와 『유희요 연구』는 주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전자에는 동해안·서해안의 어업노동요, 강화도 시선뱃노래, 제주도 해녀소리 등에 관한 논문(10편)이 실려 있으며, 후자에는 강강술래 관련 논문(5편)과 동요에 관한 논문(7편)이 담겨 있다. 이는 학회지인 『한국민요학』에 실렸던 논문들을 민요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여 집적해 놓은 것이며, 개인이 아닌 학회 차원의 학술총서로서 지속적으로 발간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료집으로는 민요 부문에서는 김영운이 경기도의 향토민요집을, 이소라가 경기도 <모심는 소리>와 <논땀소리>를, 박관수가 <풀씨는 소리>를 묶어 냈다.<sup>17)</sup> 특히 박관수의 『풀씨는 소리의 이해』는 강원도 일대와 경상북도 봉화군 일대의 <풀씨는 소리>를 소개한 책이다. <풀씨는 소리>는 어느 민요보다 현장적이고 향토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풀 씨는 현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전승이 중단된 민요인데, 이를 채록하여 자료집으로 묶은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4. 무가

무가는 무속 혹은 무속의례와 결합되어 있는 갈래로서 무가와 무속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이 달라진다. 무가 자체에 중점을 둔 문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무속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행적 연구, 무속만을 다룬 민속적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학적 연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으로,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을 다룬 이지영의 연구, 바리데기의 서사구조를 통과 의례에 견주어 본 김영민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sup>18)</sup>

14) 이윤정, 「경기도 서북부지역과 황해도의 논농사소리 비교연구」, 『한국민요학』 18집, 2006 ; 권오성,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민요에 대하여」, 『한국민요학』 18집, 2006 ; 권오경, 「중국 산가의 특성과 한국 민요와의 비교 가능성」, 『한국민요학』 19집, 2006.

15) 장유정, 「만요를 통해 본 1930년대의 근대문화」, 『웃음문화』 1호, 2006 ; 장유정, 「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양상 고찰」,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 이승희, 「민요의 하이퍼텍스트적 변용」, 『한국민요학』 18집, 2006.

16) 한국민요학회, 『유희요 연구』, 민속원, 2006 ; 한국민요학회, 『수산노동요 연구』, 민속원, 2006.

17) 김영운·김혜정·이윤정, 「경기도의 향토민요」(상, 하), 경기문화재단, 2006 ; 이소라, 「경기도 모심는 소리의 양상과 민요권」, 전국문화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 이소라, 「경기도 논땀소리 자료총서 4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 박관수, 『풀씨는 소리의 이해』, 민속원, 2006.

18)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 12집, 2006 ; 김영민, 「바리데기 무가의 신화비평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58집, 2006.

다음, 무속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로는 안상경, 김현선의 논의가 주목된다.<sup>19)</sup> 안상경은 충청도 앓은굿 연구의 일환으로서, 병굿이 가지는 연극적 속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충청도 병굿도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장의 설치와 신·인의 공존, 법사의 변신과 환자의 몰입, 양재의 진행과 갈등해소의 측면에서 공연 예술적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충청도 앓은굿의 공연예술적 성격을 드러내는 한편 병굿의 정체와 위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현선은 서울지역 바리공주와 甘露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서울지역 만신의 문학사적 기여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후자는 만신이 부르는 무가가 원시적인 복합갈래 형태를 띠고 있고, 가사의 율격과 굿놀이의 양상 등에 있어서 주류문학과 연관되어 있음을 논하였다. 이로써 서울지역 만신은 비주류이면서도 문학사에 기여한 공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들 외에 무속 혹은 현대적 계승에 중점을 둔 연구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진도셋김굿의 공연예술성을 논한 김미경의 연구, 동해안 별신굿의 연극적 특성을 추출한 심상교의 연구, 정읍의 단골 전금순에 대한 무계와 굿 절차를 다룬 이영금의 연구, 광주소리를 중심으로 세습무계의 통혼과 판소리의 상관성을 고찰한 정대하의 연구, 무당들의 입무담을 다룬 홍태한의 연구, 문화콘텐츠로서 무속을 계승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고운기의 연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sup>20)</sup>

한편, 무가 부문에서는 김현선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서울지역 안안팍굿 무가자료집, 동해안 오구굿 무가자료집을 묶어냈다.<sup>21)</sup> 전자는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역사적 성격, 굿두리와의 연관성을 다룬 것으로서, 30여 편의 관련 신화와 설화 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자료집이자 특정 유형의 본풀이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서를 겸하고 있다. 후자의 서울지역 안안팍굿 무가자료집과 동해안 오구굿 무가자료집은 현지에서 직접 채록한 무가자료를 정리한 생생한 자료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홍태한은 황해도 무가 자료집을, 류종목은 강원도의 송경 자료집을 출간하였다.<sup>22)</sup> 두루 아는 바와 같이, 구비문학은 말로써 전승되는 공동작의 문학이기 때문에 특정한 작가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 연구는 말로 구연된 자료를 채록하여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좋은 자료를 가진 구연자를 찾아내어 온전하게 채록해내는 것은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자,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기존의 채록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새로운 각편을 채록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예전에는 비교적 소홀했던 독경무들의 경문을 집중적으로 채록하여 계속 출판하고 있는 류종목의 송경 자료집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5. 판소리

판소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회의 기획연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판소리학회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라는 기획연구를 계속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흥부가(판소리연구 21집)와 적벽가(판소리연구 22집)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sup>23)</sup> 먼저 흥부가에 대해서는 박록주 명창이

19) 안상경, 『충청도 병굿의 공연예술성 연구』, 『국어국문학』 143집, 2006; 김현선, 『서울지역 바리공주와 甘露幀』,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김현선, 『민중들의 문학과 주류문학의 거리』, 『고전문학연구』 29집, 2006.

20) 김미경, 『진도셋김굿의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검토』,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심상교, 『동해안 별신굿의 연극적 특성 연구』, 『강원민속학』 20집, 2006; 이영금, 『전북지역 세습무의 삶과 무업』, 『한국무속학』 12집, 2006; 정대하, 『세습무계의 통혼과 판소리 전승의 상관성』,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홍태한, 『굿판의 이야기 입무담 연구』, 『남도민속연구』 13집, 2006.

21)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보고서, 2006; 김현선, 『서울지역 안안팍굿 무가자료집』, 보고서, 2006;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월인, 2006.

22) 홍태한, 『한국의 무가 6 : 황해도 무가』, 민속원, 2006; 류종목, 『강원도의 송경 연구』 2, 민속원, 2006.

2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신의 스타일로 다듬은 <홍보가>의 정립과정과 사설의 특징을 살핀 김석배의 연구, 박타령을 대상으로 송만갑·김정문·박록주로 이어지는 전승변이 양상을 고찰한 이규호의 연구, 김기팔·최인훈의 소설 및 마당놀이 등 현대적 변용양상을 다룬 김남석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적벽가에 대해서는 창극·마당놀이·창작극 등의 갈래 변용을 통한 현대적 재창작 양상에 관한 김기형의 연구, 적벽가의 내적구조와 그 완결성을 다룬 김종철의 연구, 동편제 적벽가의 전승양상과 변모를 음악적 측면에서 고찰한 명현의 연구, 조조와 그의 군사들을 중심으로 유발되는 웃음의 특징을 논한 이주영의 연구, 적벽가 창본의 희곡성을 다룬 홍순일의 연구가 모여 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라는 기획연구는 2005년도의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연구를 뒤이어 마무리한 것이다. 이처럼 가창이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의 문학적**, 음악적, 미학적, 연극적 측면에서 출발한 개별적 논의를 수렴함으로써 판소리 연구의 수준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학회에서는 특정 지역 혹은 유파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연구도 실시하였다. 2005년도에는 고창의 판소리문화를 살핀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박유전-정재근-정응민 명창을 통해 형성된 보성소리를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 보성소리의 형성과정과 전개를 다룬 최동현의 연구, 정문일가의 판소리사적 의의를 음악적 측면에서 고찰한 김혜정의 연구, 보성소리의 확립자인 정응민 명창의 특징을 논한 최혜진의 연구, 보성소리의 개별성과 개방성을 축으로 하여 판소리의 세계화를 전망한 서종문의 연구, 보성소리의 교육현황과 발전방안을 제안한 전인삼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었다.<sup>24)</sup> 또한 판소리의 현대화 측면에서의 논의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스타대전>과 같은 창작판소리의 특징, 판소리 청관중의 가장 참여방식, 또랑광대의 성과, 춘향제와 같은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은 결국 어떻게 판소리를 현대화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한편, 서대석·손태도·정충권은 전통 구비문학과 근대 공연예술의 전변과정을 밝히는 객관적인 자료집과 그에 관한 연구서를 함께 출간한 바 있다. 즉, 근대 초창기 극장무대 공연자에 대한 대담자료와 신문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공연환경 변화에 따른 재담·잡가·창극의 변모상을 추적하였다. 이는 뚜렷한 문제의식 하에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더불어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경우라고 평가된다.

## 6. 민속극

민속극 연구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전승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 그나마 실제생활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화석화된 전승양상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가면극이나 꼭두각시놀음에 대한 연구가 진정한 민속극 연구의 범주라고 한다면, 연희나 놀이까지 확대시킨 넓은 의미의 민속극 연구가 공존한다.

24) 권순궁, 「토끼전의 매체변화와 존재방식」,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김동진·최운호, 「판소리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의 실제」, 『국어국문학』 143호, 2006; 이지양, 「문화콘텐츠의 시각으로 고전 텍스트 읽기: 춘향전의 춘당대 시과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최동현, 「판소리 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2집, 2006.

25) 박진아, 「<스타대전 지그 초반리쉬 대목>을 통한 창작 판소리의 가능성 고찰」, 『판소리연구』 21집, 2006; 이유진, 「판소리 청관중의 가장참여 방법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22집, 2006; 박홍주, 「전통 소리판의 현대적 재현: 또랑광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2집, 2006; 김수중, 「춘향과 심청의 축제의 성격 고찰」, 『한국언어문학』 56집, 2006; 김승중, 「남원 춘향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좁은 의미의 민속극 연구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박진태의 논의이다. 그는 전북지역의 마을굿과 농악대 잡색놀이에 들어있는 희생양과 속죄양 모티프를 살펴봄으로써 호남지역에도 원초적 형태의 민속극이 존재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탈춤과 탈놀이의 미학적 차이를 예술분류법과 관련시켜 논하였다. 탈춤은 조각·음악·무용을 공통요소로, 탈놀이는 조각·음악·무용·연극을 공통요소로 한다고 하고, 전자가 초기적 형태와 무용적 요소를 강조한 용어라면 후자는 후기적 형태와 연극적 요소를 중시한 용어로 보았다. 이들 두 용어는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선택적인 용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꼭두각시 놀음과 봉산탈춤의 음악을 다룬 임혜정의 연구, 전통 인형연희의 연행방식을 살핀 허용호의 연구, 조선후기 탈춤의 연행구조를 고찰한 정수연의 연구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논의라고 하겠다.

한편 연희, 놀이, 무용, 축제를 포함한 공연문화 전반으로 확대된 연구로는 호남지역 풍물굿의 잡색놀음을 대상으로 잡색의 성격화와 구조적 특성을 고찰한 이영배의 연구, 땅재주의 역사적 전개와 연희양상을 살핀 서지은의 연구, 광대의 음악문화와 연관지어 살풀이춤의 형성과정을 다룬 이정노의 연구, 팔관회·연등회 등 불교축제와 공연예술의 관련성을 논한 박진태의 연구 등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전통연희를 현대사회 혹은 현대적 공동체 속에서 창조적으로 계승시켜야 한다는 반성적·발전적 논의도 행해졌다. 예를 들어 관노가면극을 포함한 강릉단오제를 지역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 현대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황루시의 연구, 전래놀이·설화·민요·판소리·탈놀이 등을 이용한 연극놀이를 통해 생활문화 공동체 속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문학을 구비문화화해야 한다는 연극놀이터 해마루의 사례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된다.

민속극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저서로는 서연호·김현철의 『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을 들 수 있다.<sup>26)</sup> 이 책은 한국의 연희를 굿놀이, 탈놀이, 인형놀이, 판소리, 광대굿놀이, 정재와 교방무, 사찰연희, 대동놀이, 풍물놀이, 유랑광대놀이를 나누고, 각각의 성립과 전개를 서술하였다. 또한 연희자와 연희 종목, 연희 내용, 특히 연행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연희에 대한 종합적이고 개론적인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자료집 등 여러 권의 기초자료가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sup>27)</sup>

## 7. 마무리

이상으로 2006년도의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는데,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수박겉핥기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모름지기 연구동향은 연구결과물을 두루 섭렵하여 이를 토대로 주요한 성과나 진전을 드러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읽는 일조차 쉽지 않으며, 주전공이 아닌 논저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만 하다. 다만 논저자의 의도를 오해 내지 곡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구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혹여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두렵게 생각한다. 만약 연구논저가 누락되었거나 곡해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좀더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과 새로운 자료의 채굴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영역을 찾아내기란 기실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변의 문화이론이나 의사소통이론 등에 기초한다면 새로운 영역이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26) 서연호·김현철, 『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인간』, 2006.

27)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월인, 2006 ; 홍태환, 『한국의 무가 6 : 황해도 무가』, 민속원, 2006 ; 류종묵, 『강원도의 송경 연구』 2, 민속원, 2006 ; 김호석, 『봉산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6 ; 이병욱, 『송파산대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피아, 2006.



이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분산된 연구물들이 일반적인 이론의 틀 속에서 의미 있는 연계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영역을 연관시킨다든지 또는 선행연구자들이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이른바 틈새영역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틈새영역은 그동안 연구자들이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겠고, 주변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모두 구비문학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료 채록도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료 역시 관심분야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수차례에 걸쳐 채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여러 차례 채록되는 것이 구비문학 연구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동안 채록된 기회가 적었던, 혹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자료까지 찾아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료일수록 전승의 중단 내지 소멸 시기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심은 한층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요즘 구비문학의 비교연구가 활발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학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학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교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국 자료의 수집과 외국어 능력에서의 한계이다. 이를 극복하고 좀더 심도있는 국내외 비교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정리의 공동작업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비문학은 이를 전승하는 집단의 삶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비문학 전승집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고, 세분화되기도 한다. 특히 구성원의 성격과 계층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감안한 구비문학 연구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조직에 속해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정보수단과 쌍방향의 소통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구비문학 혹은 구비문화를 현대인의 시각에서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은혜, 『한국설화문학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김광순, 『새로 발굴한 한국구비문학』, 박이정, 2006.  
 김문태, 『되새겨 보는 우리 건국신화』, 보고사, 2006.  
 김일렬, 『한국설화의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새문사, 2006.  
 서대석·손태도·정충권, 『전통 구비문학과 근대 공연예술』(3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이신성·고희가, 『韓·中 민간설화 비교연구』, 보고사, 2006.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최광식, 『백제의 신화와 제의』, 주류성, 2006.  
 최운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6.  
 황패강, 『한국 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허경진·허휘훈, 『민간설화자료집 1-3』, 보고사, 2006.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김영운·김혜정·이윤정, 『경기도의 향토민요(상, 하)』, 경기문화재단, 2006.  
 김예풍, 『조선족 민요연구』, 박이정, 2006.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박관수, 『풀썬 소리의 이해』, 민속원, 2006.  
 이소라, 『경기도 모심는 소리의 양상과 민요권』, 전국문화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_\_\_\_\_,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4권』, 전국문화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임동권, 『한국 민요논고』, 민속원, 2006.  
 조영배, 『한국의 민요 아름다운 민중의 소리』, 민속원, 2006.  
 한국민요학회, 『유취요 연구』, 민속원, 2006.  
 \_\_\_\_\_, 『수산노동요 연구』, 민속원, 2006.  
 광주민속극박물관, 『우리나라 인형』, 광주민속극박물관, 2006.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월인, 2006.  
 김호석, 『봉산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6.  
 노계명,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 2006.  
 박진태, 『전북지역문화의 재인식』,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서연호, 『한국 연극 전사』, 연극과인간, 2006.  
 서연호·김현철, 『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인간, 2006.  
 서종문, 『판소리의 역사적 이해』, 태학사, 2006.  
 윤석달, 『명창들의 시대』, 작가정신, 2006.  
 이병옥, 『송파산대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피아, 2006.  
 조동일,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 탈춤의 역사와 원리』, 지식산업사, 2006.  
 홍태한, 『한국의 무가 6 : 황해도 무가』, 민속원, 2006.

2. 연구 논문

<설화>

강명혜, 「양구 인물설화의 의미 및 기능 : 박장사 설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강성숙, 「<바보 사위> 설화 연구 : 바보 우행의 의미와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06.

- 강은혜, 「인물 설화에서 살펴 본 대구·경북의 문화원류 : 민족혼을 진작한 원효·일연·최제우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8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
-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 곽진석, 「시베리아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 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권복순, 「풍수설화의 존재 양상과 의식 구조 : 성지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말글교육』 9집, 우리말글교육학회, 2006.
- 권혁준, 「인제군 인물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강산, 「태백산신이 된 단종」,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경남, 「평창군 기녀 청심과 청심계 일고」,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경섭, 「<양산백전>에 나타난 염정담과 군담의 결합 양상」, 『겨레어문학』 36집, 겨레어문학회, 2006.
- 김근태, 「이덕무 문집 소재 설화의 이념과 소품문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김기창, 「변암 체제공 설화 연구」, 『새국어교육』 7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김기호, 「웃음 서사의 한 원형으로서 호랑이 설화」, 『한국사상과 문화』 3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김나영, 「비틀어진 인물 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 : <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김방룡, 「설화를 통해 본 진묵일옥(震默一玉)의 삶과 사상」, 『한국불교학』 44집, 한국불교학회, 2006.
- 김상현, 「크로아티아 계몽주의문학과 낭만주의문학의 구비시가 전통계승 양상」,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김선풍,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장군(기1)」,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_\_\_\_\_, 「한국 사냥 설화의 상징적 의미」, 『중앙민속학』 11호, 중앙대 한국민속학연구소, 2006.
- 김월덕, 「정여립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화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김은수, 「수로부인설화와 현화가」, 『고시가연구』 17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 김재화, 「시대적 정치유머와 정치인유머의 변화에 대한 연구」, 『웃음문화』 1호, 웃음문화학회, 2006.
- 김종대, 「대학생이 전승시키는 괴담의 유형과 그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 파악을 위한 시론 : 아기장수 설화에서 바라본 '비극'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 김태수, 「설화에 나타나는 허목의 삶과 민중의식 :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효정,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6집 2호, 한국중동학회, 2006.
- 나리사와 마사르, 「우승 이야기의 전형과 그 한국적 전개 : 특히 그 득명화소에 주목하여」,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노로브남, 「몽·한 설화비교 : 별의 기원신화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마쯔바라 다카토시, 「고구려신화의 재검토」,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박경희, 「경기 해안도서와 동아시아의 설화 전파 : 「우렁각시」 설화의 한반도 서해안 전래 추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 박기용, 「'귀양 간 지리산' 설화의 전승 배경과 변이 양상」, 『우리말글』 36집, 우리말글학회, 2006.
- 박상란, 「청자가 설화 구연에 미치는 영향(1)」, 『한국사상과 문화』 3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_\_\_\_\_,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캐릭터 : "목화 따는 노과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_\_\_\_\_, 「지명전설에 나타난 궁예상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박명숙, 「한·중 차복설화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2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_\_\_\_\_, 「한·중 구복여행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_\_\_\_\_, 「중국 호랑이설화의 한일 수용양상 비교연구 : 「신도징」과 「호화」 설화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34집, 일본어문학회, 2006.
- 박종익, 「대전광역시 명당실태와 풍수설화 고찰」, 『어문연구』 52권, 어문연구학회, 2006.

- 백민정, 「〈돌노적 위의 금덩이〉 설화의 구조로 본 전승자 인식의 의의」, 『인문학연구』 33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 서경호, 「중국 소화의 전통」, 『웃음문화』 2호, 웃음문화학회, 2006.
- 서대석, 「한·중 소화의 비교연구 : 무식담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_\_\_\_\_, 「웃음이론과 소화」, 『웃음문화』 2호, 웃음문화학회, 2006.
- 서혜숙, 「설화교육의 수준별 적용과 한계 : 초·중등교과서에 수록된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신동훈·김중근·김경섭, 「도심 공원 이야기관의 과거와 현재 : 서울 종로구 이야기관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신원기,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0집, 한국어교육학회, 2006.
- \_\_\_\_\_, 「설화의 교재화 양상에 대한 고찰 : 교육과정의 내용영역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심민호, 「마을 재양담에 나타난 풍수사상」,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_\_\_\_\_, 「풍수설화에 나타난 여성인물 고찰 : 남성의 시각으로 재단된 여성들」, 『겨레어문학』 36집, 겨레어문학회, 2006.
- 심우장, 「봉이 김선달과 엽기토끼 마시마로」, 『웃음문화』 2호, 웃음문화학회, 2006.
- 안정훈, 「불교설화의 중국화 과정 고찰을 위한 시론」, 『중국소설논총』 23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6.
- 양연석, 「고성과 사명당의 관계 고찰」,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엄수경, 「〈콩쥐팍쥐〉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 고찰」, 『남도민속연구』 13집, 남도민속학회, 2006.
- 오세정, 「고전문학과 편견 : 구비설화의 성담론, 독사(doxa)와 파라독사(paradoxa)」,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_\_\_\_\_, 「구비설화의 상상력과 지역적 특성 : 이성계 설화 전승의 공백성」, 『우리말글』 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 \_\_\_\_\_, 「한국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 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
- \_\_\_\_\_, 「이야기와 문화콘텐츠」, 『시학과 언어학』 11집, 2006.
- 우상렬, 「설화에 있어서 동물의 문화상징적 의미 비교고찰 : 중국과 한국의 경우」,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윤수준, 「한중 우언의 비교 연구 : 동물우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 윤주필, 「베트남의 서정전(鼠精傳)과 한국의 옹고집전의 비교 : 진가쟁주 설화의 수용미학적 관점」, 『고소설연구』 2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윤혜신,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 나타난 천신의 인격화 양상과 의미 : 79세기 배경 설화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0집, 민족문화사학회, 2006.
- 이강옥, 「《삼국유사》 출가 득도담 및 출가 성불담의 초세속 지향 양상」,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이남옥, 「김통정 설화 연구」, 『탐라문화』 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이동철, 「수로부인 설화의 의미 : 기우제의적 상황과 관련하여」, 『한민족문화연구』 1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 이승수, 「누이의 죽음, 잔영, 그리움 : 오늬 형상의 전변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이병찬, 「포천지역 설화의 연구」, 『반교어문연구』 20집, 반교어문학회, 2006.
- \_\_\_\_\_, 「포천지역 설화의 특징」, 『인문학 연구』 1호,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2006.
- 이영수, 「전승 시기에 따른 설화의 변이 양상에 관한 연구 : <콩쥐팍쥐> 설화를 중심으로」, 『인하어문연구』 7호, 인하대학교 인하어문연구회, 2006.
- \_\_\_\_\_, 「궁에 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 이은경, 「충북 민속콘텐츠의 진망과 과제 : 충북의 설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충북학』 8집, 충북개발연구원, 2006.
- 이재범, 「역사와 설화 사이 : 철원 지역설화로 본 궁예왕」,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이창식, 「영월지역의 김삿갓 인물설화 연구」,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이학주, 「신승검 설화의 영웅적 형상화 연구」,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이한길, 「양양군 탁장사 설화의 문헌자료 분석」,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_\_\_\_\_, 「양양 불교설화 속에 보이는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임재해,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설화 전승양상의 재인식」,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정소영, 「온달설화의 역사수용 의식과 재창조 양상」, 『한국언어문학』 5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_\_\_\_\_,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인간구원 : 광덕과 엄장, 노닐부득과 달달박박, 조신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_\_\_\_\_,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래동화의 설화수용의식과 교육적 의미」, 『새국어교육』 7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정수현, 「대중매체의 설화수용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정영신,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3집,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2006.
- 정운수, 「홍천의 이팔 전설 전승양상」,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정재민, 「면신례 풍속과 신래회학담의 관련양상」, 『민속학연구』 18호, 국립민속박물관, 2006.
- \_\_\_\_\_, 「신병유머의 면모와 의식세계」, 『웃음문화』 1호, 웃음문화학회, 2006.
- 정진희,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일상의 특성과 경험의 신화화 양상」, 『국문학연구』 14호, 국문학회, 2006.
- 정진희,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조미영, 「금기설화 연구 : 장자못 전설과 현대소설로의 변용」, 『한국어문학연구』 24집,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2006.
- 조영주, 「김덕령 설화 전승 연구」, 『겨레어문학』 36집, 겨레어문학회, 2006.
- 조용선, 「정여립 설화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에 대한 고찰」, 『겨레어문학』 36집, 겨레어문학회, 2006.
- 조윤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석의 상황과 양상 연구 : 구전설화 재해설용 단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조현설, 「조선말 민중종교 운동 관련 문학에 나타난 신이인식의 의미 : 수운·증산 전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4호, 국문학회, 2006.
- 조희웅, 「조선초 초기의 구비문학사 : 설화자료를 중심으로(1)」, 『어문학논총 개교 60주년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6.
- \_\_\_\_\_, 「색시 찾은 신랑 : 「아내의 초상」, 「웃지 않는 미녀」, 「새털웃신랑」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5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최명환, 「충북 북부지역 여성설화 연구 : 마고설화와 다자구설화를 중심으로」, 『충북학』 8집, 충북개발연구원, 2006.
- 황인덕, 「한·중·인 구북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 \_\_\_\_\_, 「맹인 이야기꾼 이몽득 연구」, 『인문학연구』 33권 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현승환, 「해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5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민요>
- 강등학, 「<땅다지는 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권오경, 「중국 산가의 특성과 한국 민요와의 비교 가능성」,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권오성,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민요에 대하여」,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김진하, 「제주 민요의 후렴 "이여도"의 다의성과 이여도 전설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6.
- 김현선, 「제주도 동요 연구 : 제주도 한림읍 애월면 귀덕리 제보자를 예증삼아」,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김혜정, 「강강술래 부수놀이요의 음악적 특성과 생성원리」,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박경수, 「구비문학과 문예창작 : 현대시에서의 민요 아리랑과 논개 이야기의 수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박관수, 「풀씨는소리 사설의 유음 원리」,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_\_\_\_\_, 「풀씨는소리에 대한 향유론적 접근」, 『민속학연구』 19집, 국립민속박물관, 2006.
- 박경정, 「사이버 공간에서 민요자료의 존재양상과 학술적 활용 시각」,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변성구, 「제주민요의 사설과 노래명 표기에 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서영숙, 「‘외간남자-여자’ 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2006.
- 손인애, 「향토민요 양산도타령 연구 : 전라도의 양산도타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9집, 한국국악학회, 2006.
- \_\_\_\_\_, 「<오독도기> 계통의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서영숙, 「<동당애타령>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과 의미」,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서영희, 「일제강점기 박영호의 대중가요 가사 작품 연구」, 『민족문화논총』 33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 양영자, 「제주민요에 나타난 삶의 대응방식과 생활인식」, 『탐라문화』 28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엄성은, 「전래동요 ‘너리기편지’에 대하여」,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우승표, 「도자각업가중의 생상서사가요」,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윤명원, 「일제 강점기 민속음악의 전승양상 : 판소리·창극·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0집, 한국국악학회, 2006.
- 이승희, 「민요의 하이퍼텍스트적 변용」,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이영식, 「장례요의 <옥설가>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 이운선, 「<진도 토요민속여행>과 노스텔지어 연출론」,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이윤정, 「경기도 서북부지역과 황해도의 논농사소리 비교연구」,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이현수, 「정선지역의 축제에 대한 연구 : 정선아리랑제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장유정, 「현대 대중음악과 공동체 문화의 상관성 연구 : 대학생들의 대중음악 향유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 장유정, 「만요를 통해 본 1930년대의 근대문화」, 『웃음문화』 1호, 웃음문화학회, 2006.
- \_\_\_\_\_, 「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양상 고찰 : 수심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 정연수, 「탄광촌의 민요에 나타난 탄광촌 정체성 연구」,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좌혜경, 「민속적 관점에서 살핀 제주민요 요종별 특성」, 『영주어문』 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 최자운, 「꼬막각시 노래의 유형과 의례」, 『한국민요학』 18집, 한국민요학회, 2006.
- \_\_\_\_\_, 「도서지역 여성구연 상여소리 연구」, 『민속학연구』 18집, 국립민속박물관, 2006.
- 최재남, 「문집 소재 조선 후기 민요자료 정리 및 분류」, 『배달말』 38호, 배달말학회, 2006.
-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민속문화정보」, 『한국민요학』 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무가>

- 고운기, 「한국 무속 굿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28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김미경, 「진도셋굿의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검토」,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 김영민, 「바리테기 무가의 신화비평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58집, 한국언어문학학회, 2006.
- 김현선, 「서울지역 바리공주와 甘露幀」,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 \_\_\_\_\_, 「민중들의 문학과 주류문학의 거리-서울지역 만민의 문학사적 기여」, 『고전문학연구』 29집, 2006.
- 박지애, 「소설의 무가화에 따른 특징과 의미 : 양산백전과 치원대 양산복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 박진태, 「디딜방아액막이굿의 주술성과 오락화 현상」, 『비교민속학』 31, 비교민속학회, 2006.
- 변지선, 「진오기굿의 제차와 구조」, 『민속학연구』 19집, 국립민속박물관, 2006.
- 심상교, 「동해안 별신굿의 연극적 특성 연구」,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안상경, 「충청도 병굿의 공연예술성 연구-귀신착수의 연극적 속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3집, 2006.
- 오문선, 「서울 무가에 등장하는 당에 대한 연구」, 『충북사학』 17집, 충북대 사학회, 2006.
- 이영금, 「전북지역 세습무의 삶과 무업」, 『한국무속학』 12집, 한국무속학회, 2006.
- 이정재, 「실크로드 신화 애견이여 춤춰라와 한국 무가 바리공주의 비교 연구」,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 이지영, 「문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정대하, 「세습무계의 통혼과 판소리 전승의 상관성」,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 홍태환, 「남강 선생의 무속 연구 성과와 의의」, 『한국의 민속과 문화』 11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6.
- \_\_\_\_\_, 「굿판의 이야기 입무담 연구」, 『남도민속연구』 13집, 남도민속학회, 2006.

## &lt;판소리&gt;

- 권순궁, 「토끼전의 매체변화와 존재방식」,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김기형, 「<적벽가>의 장르 변용을 통한 재창조와 창작소재로의 활용양상」,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김남석, 「<홍보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김동건·최운호, 판소리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의 실제」, 『국어국문학』 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 김석배, 「박록주 <홍보가>의 정립과 사설의 특징」, 『판소리연구』 21집, 2006.
- 김수중, 「춘향과 심청의 축제적 성격 고찰」, 『한국언어문학』 5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김승중, 「남원 춘향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김윤희, 「개우사의 작품 세계와 창작 기반」, 『우리어문연구』 27집, 우리어문학회, 2006.
- 김중균, 「조선시대 가인들의 활동 고찰 : 문헌설화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김종철, 「<적벽가>의 대칭적 구조와 완결성 문제」,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김창현, 「변강쇠가」 탭득이의 인물형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 김현주, 「판소리의 음악어법과 풍속화의 회화어법의 상관관계」,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김혜정, 「정문일가 판소리의 판소리사적 의의 : 정권진과 한애순 심청가의 음악적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_\_\_\_\_, 「판소리의 사당패소리 수용 양상」, 『남도민속연구』 12집, 남도민속학회, 2006.
- 나진환, 「공연학으로 본 판소리 공연예술의 미학적 특질 : 신재효의 <광대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집, 2006.
- 명 현, 「동편제 <적벽가>의 전승과 변모」,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박상란, 「21세기 춘향전 수용의 양상과 의미 : "트렌디" 드라마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6집, 우리어문학회, 2006.
- 박상란, 「사랑가의 변모 양상과 성적 주체의 문제」, 『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 박진아, 「<스타대전 저그 초반러쉬 대목>을 통한 창작 판소리의 가능성 고찰」,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박홍주, 「전통 소리판의 현대적 재현 : 또랑광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배연형, 「『별춘향전』 (완판 29장본) 연구」,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서종문, 「세계화와 판소리의 대응 : 보성소리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성기련, 「1940~195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손태도, 「조선시대 화극의 전통과 그 역사」, 『공연문화연구』 1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 신은주, 「판소리 평타령·중모리·중중모리 장단에 대한 연구 : 이용우 필사본 <춘향가>와 심정순 창본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0집, 한국국악학회, 2006.
- 오윤선, 「<옥중화>를 통해 본 이해조 개작 판소리의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윤신향, 「판소리 공연의 미적 특성에 기초한 한국현대예술 시론」, 『음악과 문화』 15집, 세계음악학회, 2006.
- 이규호, 「박록주 <홍보가>의 성립과 전승에 대하여 : 박타령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이유진, 「판소리 청관중의 가창참여 방법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_\_\_\_\_, 「민요 차용의 관점에서 본 판소리사의 몇 가지 문제」, 『국문학연구』 14호, 국문학회, 2006.
- 이주영, 「<적벽가>를 통해서 본 웃음의 형식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이지양, 「문화콘텐츠의 시각으로 고전 텍스트 읽기 : 춘향전의 춘당대 시과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 임상석, 「김지하 당시의 "현재성"과 판소리」, 『비교한국학』 14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 임성래, 「송만갑 <이별가>의 사설 변화와 그 특성」,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전지영, 「판소리 중고제의 제설과 정의에 관한 재검토」, 『이화음악논집』 10집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6.
- 전인삼, 「보성소리 교육현황과 발전방안」,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 정병현, 「판소리에 나타난 웃음문화의 양상」, 『웃음문화』 2호, 웃음문화학회, 2006.
-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일상성」, 『국문학연구』 14호, 국문학회, 2006.
- 정학성, 「적벽가의 삼국지 변용 양상」, 『어문연구』 34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진은진, 「남성 작가의 <춘향전> 수용과 향유 방식」,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 최광석,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서술자 개입 양상과 지평전환」,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최동현, 「보성소리의 전개」,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_\_\_\_\_, 「판소리 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최혜진, 「보성소리 정응민 명창론」, 『판소리연구』 21집, 판소리학회, 2006.  
 \_\_\_\_\_, 「박초월 바디 <수궁가>의 진승과 변모 양상」,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하주용, 「판소리의 우조 연구」, 『음악과 문화』 15집, 세계음악학회, 2006.  
 홍순일, 「<적벽가> 창본의 극적 갈등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민속극>

김방욱, 「한국 현대 연기에 있어서 전통적 요소의 수용과 모색 : 탈춤사위의 도입부터 '한국적 연기의 원리'까지」, 『한국연극학』 28호, 한국연극학회, 2006.  
 김양진, 「민속극에 나타난 노인 연구」, 『새얼어문논집』 18집, 새얼어문학회, 2006.  
 김호연, 「한국 고대 연희에 나타난 공간구조」, 『동아시아고대학』 1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김효분, 「신라의 가면극 :탈춤의 연원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5권 1호, 한국체육학회, 2006.  
 나일화, 「코메디아 델 아르테와 봉산탈춤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7집, 한국무용예술학회, 2006.  
 박진태, 「전북지역 민속극에 들어있는 속죄양과 회색양」,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_\_\_\_\_, 「한국 불교축제와 공연예술의 관련양상」, 『공연문화연구』 1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_\_\_\_\_, 「탈춤과 탈놀이의 용어에 대한 미학적·예술학적 접근」, 『공연문화연구』 13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서지은, 「땅재주의 역사적 전개와 연희양상」, 『민속학연구』 18호, 국립민속박물관, 2006.  
 신동훈, 「민간연희를 통해 본 한국적 웃음의 단면 : 동해안 거리극의 허물어 하나 되는 웃음」, 『웃음문화』 1호, 웃음문화학회, 2006.  
 연극놀이터 해마루, 「생활문화공동체에서의 전통연희를 활용한 연극놀이」,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이미숙·박수진,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코미디프로그램의 특징 : <웃찾사>의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웃음문화』 2호, 웃음문화학회, 2006.  
 이정노, 「살풀이춤의 형성배경에 관한 일고찰: 광대의 음악문화에 대한 연관성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12집, 2006.  
 임혜정, 「꼭두각시놀이의 음악 연구」, 『공연문화연구』 1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_\_\_\_\_,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음악」, 『한국음반학』 16집, 한국고음음반연구회, 2006.  
 정수연·전은자, 「조선후기 탈춤 연행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7호, 대한무용학회, 2006.  
 허용호, 「전통인형연희의 연행방식 연구」,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황루시, 「현대의 공동체와 축제의 기능 :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일반론 및 기타>

김홍규, 「매체환경의 변화와 고전 텍스트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박근서, 「웃음, 위반과 일탈의 텍스트 : 프로이트의 공식을 중심으로」, 『웃음문화』 1호, 웃음문화학회, 2006.  
 박연호,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50권, 어문연구학회, 2006.  
 박전열, 「교재를 통해 본 일본의 웃음문화」, 『웃음문화』 2호, 웃음문화학회, 2006.  
 서은아, 「구령덩덩신선비를 이용한 부부상담의 가능성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12집, 2006.  
 \_\_\_\_\_, 「나무꾼과 선녀와 견우직녀의 이야기 결합방식과 문학치료에의 적용가능성 모색」, 『문학치료연구』 5집, 2006.  
 심민호, 「사이버 공동체의 형성과 소통양식의 변화」,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임제혜,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 143집, 국어국문학회, 2006.  
 \_\_\_\_\_, 「왜 지금 거래문화의 뿌리를 주목하는가」,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_\_\_\_\_, 「구비문학에 의한 현실문화 만들기 가능성과 필요성」,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조동일, 「구비문학과 구비철학」, 『구비문학연구』 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_\_\_\_\_, 「웃음 이론의 유산 상속」, 『웃음문화』 1호, 웃음문화학회, 2006.  
 한양명, 「구비문학 '축제 만들기'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